

**2023 년 12 월 17 일 “(대강절 4 주) 평화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눅 2:8-14)**

본문에서 주님은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1] 창조와 평화**

창 1 장은 창조 이전과 이후의 대조적 상태를 말씀합니다. 창조 이전은 혼돈, 공허, 깊은 어둠이며(1:2), 창조 이후는 '보시기에 좋은 상태입니다.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고유한 특징, 즉,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관계 속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룹니다. 이런 상태가 샬롬(평화)입니다. 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원동력(힘)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종종 사랑이 없는 인위적 질서를 만들곤 합니다. 군사 독재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질서와 조화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평화가 아닙니다. 어떤 평화의 모습도 사랑이 본질적 힘이 없으면 가짜 평화입니다.

사람 안에는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참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 평화를 이루십니다. 이 평화는 동적인 상태로서 지속적으로 가꾸고 지킬 때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합니다.

**[2]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평화**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협력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배우고 따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자신과의 평화, 사랑하는 사람과의 평화를 배워간다면, 내면의 치유도 일어나고, 관계의 발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종종 고난이 닥칠 때,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이 때에?'라는 질문들이 압도하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많은 것들이 무의미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상태는 창조 이전의 상태와 흡사하죠? 그래서 고난은 평화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필요합니다. 창조 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몰아낸 엄청난 사랑입니다. 삶을 덮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어떤 난관이 있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많아도, 불평과 탓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돌린다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충만한 세계로의 길이 열립니다(안식). 평화가 이루어지면 희망이 생기고 삶에 능동성과 마음에 긍정의 안목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나의 내면은 어떤 면에서 평화가 필요합니까? 삶의 질서와 조화가 언제 깨지는 지 생각해 보세요.
2.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평화가 필요한가요?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동참하는 길은 무엇일까요?